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ACC, 10주년 특별전 '봄의 전시' 앞두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인류학자 에나칭 등 석학들 참석
'자본세' 극복의 중요성 역설



최근 ACC 특별전 '봄의 선언'을 앞두고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 생태론 학자 제이슨 W. 무어가 기초발제를 하고 있다.

“자본세는 기후위기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인류 발생적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본주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사유와 맞물려 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제도에 대한 비판 등을 아우른다.”

“자본세”라는 명칭을 처음 명명한 세계생태론 학자인 제이슨 W. 무어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자본세 극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적 세계 위기를 ‘자본세’로 규정한다.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적 세계 위기를 극복해야 미래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ACC가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전 '봄의 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맞물린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인류학자인 에나칭, 자본세 명칭을 첫 명명한 세계생태론 제이슨 W. 무어, 세계 3대 미술축제 중 하나인 카셀 도큐멘타 15에서 첫 아시아 예술감독 그룹으로 선정된 레오나르트 바르톨로메우스, 동양 정신에 기반한 예술을 모색해 온 김순기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와 아울러 홍콩 수환아 래플 M+ 뮤지엄 관장, 독일 엘리스타어 허드슨 ZKM 미디어아트센터 관장 등이 내년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기자간담회를 위해 참석, 눈길을 끌었다.

제이슨 W. 무어 교수는 “힘의 논리는 더 이상 안 되며 자연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대학과 학계의 지식은 인류를 구하지 못한다.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야 하며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인류가 망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 캠퍼스 교수인 에나칭은 저서 '세계 끝의 버섯'을 통해 비인간 존재를 사회적 삶에 대한 이해로 끌어들이는 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그는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세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수환아 래플 관장은 간담회에서 내년에 펼쳐질 '봄의 전시'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3년 전 개관한 홍콩의 래플 M+ 뮤지엄은 다학제적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영화와 건축 등이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홍콩을 기반으로 초국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CC와 MOU 체결은 저희 기관으로서 중요한 기회”라며 “향후 전시 기획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예술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허드슨 관장은 예술기관의 생존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유용성이라며 컬렉션을 기획하고 전시해도 미래 비전 지향성이 없으면 결국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ZKM은 기술과 예술을 융합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의 토대는 유용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제와 내용들은 2025년 10주년 전시 '봄의 선언'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작품 공동 창작자, 전시 등 공동 기획, 아카이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형 코믹극 '이다희 길들이기'

양동진 연출가 연극 다음달 1일 미로극장2

이 작품은 무엇일까. 국내에서 1991년 초연한 뒤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연극, 최화정·공효진·강혜정 등 여배우들이 거쳐 간 캐릭터 '리타'가 등장하는 공연, 명작 '이다희 길들이기'를 원작으로 재창작된 작품.

양동진 연출가가 광주형 코믹극 '이다희 길들이기'를 오는 11월 1일(오후 7시 30분), 2일(오후 3시, 6시) 미로극장2에서 선보인다. 윌리 러셀의 원작 '이다희 길들이기'를 각색, 광주의 특색을 가미했다.

미용사 출신의 다희(이유진 분)는 스물다섯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고 문학 강좌를 수강한다. 술값이나 벌어볼 마음으로 강의를 맡았던 허영구 교수(송민중)는 배움에 대한 다희의 열정과 진지함에 감화된다.

다희는 수업을 거듭하면서 점점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어떤 일을 계기로 허 교수는 다희에게 점차 실망하게 되는데....

원작 배경인 영국의 한 공개대학은 작품 속에서 '무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바뀐다. 80년대 영국이라는 시간적 배경 또한 2000년대 한국으로 옮겨왔으며 지역색을 반영한 극언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제작됐다. 각색은 유현지, 기획은 차예지가 맡았으며 진행에 조소연, 움직임 지도에 김수아, 무대감독에 송민중.



연출가 양동진은 “각 나라별로 '리타' 캐릭터가 개성 있게 구현되는데 '광주만의 리타'를 만나서 재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석 2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서용좌 작가, 장편·에세이 동시 발간 화제

'날마다 시작'·'스물 셋, 아무렇더라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

서용좌 작가(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가 장편소설과 에세이집을 동시에 펴내 '화제'다.

푸른사상에서 발간한 장편 '날마다 시작', '스물 셋, 아무렇더라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그것.

먼저 요양보호사로 살아가는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날마다 시작'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이야기이다. 소설은 '지은이'라는 이색적인 이름을 가진 인물이 새롭게 80대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자 보호자와 차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일상에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기거하고 있다. '지은이'는 매일 방문해 식사와 약을 챙기고 말동무가 돼준다.

소설에는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비롯해 무참한 현실, 언어의 왜곡 등 다양하면서도 깊은 사유가 투영돼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미완성인 인생에 대한 의미다.

서용좌는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미완성인 인생에는 플롯이 없다”며 “쓰지 않을 수 없는 강박 같은 것일까, 아예 멈출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



서용좌 작가



기에 부족한 대로 작품을 내보낸다”며 “더 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겸손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에세이집 '스물셋, 아무렇더라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일상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모았다. 매년 한 편씩 써온 글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에세이에는 지나온 과거뿐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간이 오롯이 숨 쉰다.

입학시험 감독을 맡았던 일화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묻어난다. 시험장에 늦게 나타난 학생의 모습에서, 저자는 오래 전 시험장에 지각을 했지만 내치지 않았던 어느 교수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후 지각생과 결석생을 출제하지 않게 된다.

한편 서용좌 작가는 2002년 한국작가교수회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속 예술잔치

광주 동구 동아리페스티벌 성료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재단)이 펼친 '제1회 동구 동아리 페스티벌(사진)'이 지난 25-26일 양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막을 내렸다.

“일상 속 예술로 하나 되는 생활문화예술축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한 이번 축제는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생활문화동아리 92팀이 참여, 주민 참여형 축제로 꾸러 나왔다.

25일 기념식은 공예동아리 '흙아트'의 업사이클링 흥화, 서예동아리 '서사모'의 붓글씨 퍼포먼스 등으로 채워졌다. 이어 1000여 명 동아리원 및 주민이 '붉은 노을', '아리랑'을 합창했으며 특별 공



연으로 '폼바', 동아리 큐레이션 전시가 펼쳐졌다. 26일 체험마당은 '세계놀이문화체험', '서예', '캘리', '탄분 뜨기', '차 시음', '스윙 댄스 배우기' 등 부스 중심으로 운영됐다.

문창현 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생활문화예술인

간 '화합의 장'을 넘어 주민이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던 축제의 장이었다”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이번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